

창간일	1964. 1. 1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화	100-715 서울시 중구 원동3가 26 (2330-3492)
팩스	FAX(02)279-1270
발행부수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370-2057)

제26대 총학생회선거 본격 돌입

오는 10·11일 투표까지 치열한 선거전 예상돼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일이 지난 2일 있었던 1차 유세에 계기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5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이승현(산공 3)군의 사회로 치러진 이번 유세는 기호1번 류치진(역교과)·박정진(약간부역4)씨가 먼저 40분간 유세를 했으며 이어서 기호2번 박원식(전기4)·고정환(약간경제3)씨가 유세를 진행했다.

이번 유세를 진행한 기호1번 류·박씨는 “지속적이지 못했던 지난날의 학자부가 오늘날 동국의 현실을 가져왔다”며 “학원자주회부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실재의 감동과 민족동국 자주중흥운동을 잊지말자”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학자부에 대해 “재단이사진의 부분교체, 동국발전위원회 구성, 등록금 협의 등 도출될 여러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26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을 지속적 전향과 대안으로 받아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류·박씨는 “거들너는 학자부, 통일시대 민족대학을 유지·발전·박정진과 함께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기호2번 박원식씨는 “김영삼 정권의 대선공약인 GNP 5% 사학개정 확보는 투표전략에 불과했던가”라며 현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

하고 “정부는 책임있고 근본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올해 학자부에 대해 “작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무능한 학자부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난하며 “앞으로의 학자부는 중단내 진보적, 개혁적 세력을 중심으로 대연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단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자부이어야만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유세는 오는 4일 오후 도서관 앞에서 치러지며 공청회와 3차 유세는 각각 8일과 9일 오후 1시 도서관 대합실에서 진행된다.

또한 야간강과 유세는 2차 유세가 있는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동국관(L401)에서 치러진다.

동국관(주·야), 도서관 학생회관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오는 10·11일 양일간 치러지는 이번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2일 당선공고를 통해 마무리 된다.

한국 불교학회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한국불교학회(회장=김영태·불교학)는 오는 5일 제20회 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동국관(L101)에서 개최한다.

이번 있을 발표회는 본교 서울·경주캠퍼스의 교수와 원장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 1차유세가 지난 2일 도서관앞에서 있었다.

대 교수 등 11명이 참석, 발표한다.

참석자는 ‘불교와 부모의 자녀교육’을 발표한 박선영(교육학)교수, ‘대주해의 선사상교’를 발표한 강혜원(선학)강사, 자명(불교학 박사과정), 김진원(선학)강사, 박동기(1백주년기념사업회)본부장, 차차석(불교학)강사, 이해숙(불교학)강사, 최봉수(불교학)강사, 지장규(불교학 박사과정), 원광대 심은용(동양사학)교수 등 11명이다.

학복위 공개특감 보고서 나와 회계처리상 문제점 26건 지적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운현·회계4 이하 학복위)에 대한 공개특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2일 발표됐다.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교4)가 공고한 감사보고서에서 안전회계법인(대표=김중성·공인회계사)은 자판기, 다량관 식당, 보리수·다량방 매점 및 화장품 매점, 학복위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점 26개항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5개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판기 부분에서 △정액전도금의 부재 △대여금의 관리 △자판기 구입가격의 증가 △1991회계년도 기초 이월잔액의 부정확성 등을 지적했으며 다량관 식당 부분에서 △자산담용 사례발생 △수정날인의 누락 △고정자산의 비효율적 △계정과목의 통일성 △인내료의 완전성 통제 △중빙의 누락 등이 나왔다.

또한 보리수·다량방 매점 및 화장품매점의 지적사항으로 △기장오류수정 △비용지출관리 △화장품매점의 내부통제취약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학복위 사업에 대해 △급료 및 퇴직금 산정기준 미비 △회계처리상 예산의 오류

△원천징수 불이행 △인금의 결정 △수입이자 계상 △보조금 회계처리 △진화기업권 △가치금의 증빙관리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계정재분류 △직영사업과 귀향사업에 대한 후원금 등을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 개선방향을 안전회계법인인 △위원장 재임기간과 회계기간의 일치 △이익처분 △내부통제 개선 △회계의 통합 관리 및 회계처리 방법 △자금 운용 등을 제시했다.

이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학복위원장의 임기와 회계기간이 다른 부분을 회계기간의 조정이나 위원장 재임기간의 변동 또는 두가지 방법의 절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익처분의 시기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은 상위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매장의 주기적 재고조사, 자판기수입금을 일정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본교는 지난달 27일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총장실에서 있었던 이번 학술교류협정의 주요내용은 교수, 학생의 상호교류, 서적및 연구자료의 상호교류 등이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시나카린위롯대학에 대해 “교수2천여명 학생 6천여명에 본교를 5개 가진 태국 교육계통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져있다”라고 밝히고 “이로써 해외자매대학의 지역별 다양화를 기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으로 해외자매대학의 수는 7개국 17개교로 늘어났다.

교수동정

▲송석구(철학)=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열린 제3회 일본-한국 불교학 특별 강연회에서 한국 불교학의 특장이라는 주제로 발표.

▲김인재(경제학), 이승영(무역학)=2천년대 경제 발전과 다국적 기업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참석차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체류.

분당한방병원 12월 착공 예정 재단소유 부동산 답사 마무리

동국발전협의회(이하 동발협)는 지난 1일 맨하탄 호텔(여의도 소재)에서 오석원 이사장, 민병천 총장, 황병수 총동장회장 상임부회장은 “동창회가 최대의 뒷바라지를 해 학교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발협은 오대산 연승림, 양수리 연승림, 일산 농성동 재단소유 부동산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백23차 재단이사회 열려 서돈각·안채란 이사 선임

재단은 지난 29일 제1백23회 이사회를 열고 교육경력문제 제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공직상대였던 2인의 이사에 대한 보선을 진행하고 서돈각, 안채란씨를 선임이사로 임명했다.

이번 새로 임명된 서씨는 본교,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또한 최초의 여재단이사가 된 안씨는 현 총장부의 부회장, 본교

제8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8월의 문학적 진흥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8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시 부문: 3편 내외
 - 소설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 평론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 ◇출판지역: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3년 11월 8일(월)~12일(금)
- ◇대상
 - 시 부문...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 소설부...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 평론부...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임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3년 11월 24일 동대신문 紙上
- ◇작품 제출처: 본사 총무부

※예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동대신문사

보리수

만주의 햇살이 웬지 진한 여운을 남기고 혁혁한다. 산자락 자락에는 이슬에 못다한 말이 많은 갈대꽃이 저 세상의 넋이 되어, 희끗희끗 나무껍질이 사후하는 길손에게는 뉘가 깊은 매제지를 심겨에 남긴다.

천자만홍(天紫萬紅)을 읊미하려는데 뉘 백설의 향연인가? 자연이 기상천외의 격의 도리를 곧 잘 유발해 내뿜어 우리 삶 또한 그렇지 않으랴 선에서는 格外道運을 다반사로 활용하고 있으니 비범한 자가 아니면 그 수승한 도리도 우순은 유화에 지나지 않고

고 만다.

중국의 山西省에는 그 유명한 오대산이 있다. 한국불교가 자랑하는 신라의 慈藏스님이 수학하신 곳으로 갈 기억 되고 있다. 한국의 오대산은 흥천군·명주군·평강군에 걸쳐

오대투석(五台投石)

있는 산으로서 이조실록의 史記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漢 崑崙스님이 30년 이상 주석하신 오대산이고 보면 스님은 어디에선가 그가 원하던 문수동자도 재발보살의 현현도 분명히 감득하셨으리라.

덕승산 수덕사에 주석하시며 많은 수행자를 지도 하고 있던 당대의 거승 滿空스님은 한암스님을 만나러 왔다 가며 밝은 오대천 돌멩이 하나를 한암스님에게 던진 일이 있었다. 그 돌을 한암스님이 받아

서 깨울에 던졌던 것이다. 만공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이번 오대산길에 순해가 막심하구나라고 말했다. 이것이 오대투석의 선법(禪法)이다. 두 선사의 몸 놀림은 분명 평범한 일상사에서 볼 수 있

는 아이들의 놀이이지만 그 놀이는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 사유라는 여파과정 없이 마구 투하내는 연변과 몸짓은 상대를 초월한 결대경지에서서만이 산출 될 수 있는 선사들의 기질이 아니겠는가.

후학들은 선사의 이리저러한 언행에 대하여 이리저러 저리저리 사색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기어말로 한갓 부질없는 범부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유치함이다.

만리에 흐르는 강물을 한 입에 삼켜버린 한 참나고의 고요 속에 덧없이 흐르는 삶이 대대로 팔래지 않고 언제까지나 흐르는 참 삶으로 약속하고픈 바다.

崔玄覺

인재와 기술로 세계에 도전하는 국민기업 - 삼성

오후 4시 이후
삼성인의 뒷모습엔 표정이 있습니다.

7시 출근, 4시 퇴근—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하는 조기퇴근제로 삼성인의 오후가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빴 오후 4시, 삼성인은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알리는 방송을 등뒤로 한 채 회사를 나섭니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여기시간은 자기개발과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한 조기퇴근제— 요즘, 삼성인 전 임직원들은 퇴근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그동안 이렇게 저평가로 소홀히 했던 외국어공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성인은 오후 4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질위주경영으로 초일류기업을 추구하는 삼성— 삼성은 끝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젊음의와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1993년 공개신입사원

제1회 흥남한마당 주·야 경영학과 화합의 장 발전된 모습 보여 주었으면

학부외 비리문제를 놓고 전 동학의 학우들이 그동안 잠재해 있던 내면적 불만 내지는 갈등을 표면화 시켜 서로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즈음 한 조그마한 공간에선 그간의 해묵은 갈등을 풀고자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씨이 트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있었다.

제1회 경영학과 흥남한마당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행사에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싶겠지만 이 행사는 오랫동안 주·야로 구분되어 질 수 밖에 없었던 경영학과가 예전의 틀을 벗어날려고 새롭게 하나가 되고자 노력한 행사이자, 준비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으나 큰 진척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리였다.

예상인원을 초과해 준비위원을 당황하게 한 체육행사! 처음 나란히 앉은 열 학우가 천을 낚설기만 하고 서먹서먹하거나 했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 경기가 하나씩 진행될때마다 친숙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와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런 마음은 체육대회 행사 후 가진 뒤풀이에서 오고가는 술잔과 밤하늘에 널리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서 바로 우리끼리 고민을 같이 하는 경영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날 이 행사는 심포지엄을 무사히 마치고 경영인의 밤에 이르러서 절정을 맞게 되었는데 비록 평일이 치르다보니 졸업하신 분이 몇분밖에 안오시고 재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나 참여 인원이 많은 관계로 다양한 보리수 안의 열기는 싸늘한 가을 날씨를 덮어주기

에 충분했다. 모든 행사를 끝마친 지금 관심도에 비해 준비상황이 미비하긴 했지만 그동안 주·야간 사이에 골이 깊었던 갈등이 이 행사로 말미암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 이 큰 진척을 기점으로 향후에 벌어질 모든 사업에 있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다.

이윤철
(경상대 경영학과)

●●●● 열린글터 ●●●●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661)770-2057

‘경-평 축구대회’ 불허 현 정부 통일외지 의심스러워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서총련)은 일제시대 당시 민족의 해방을 위한 1929년 평양학생들의 의기로 시작되어 올해로 64주기를 맞는 학생의날 정신을 계승하고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서울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과 평양시 대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울-평양 대학생 축구대회는 1929년 시작되었던 ‘경성군 대 전 평양군 축구대회’를 전례로 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체육회가 후원하여 1935년 끝날때까지 전민족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경-평 축구 대회는’ 당시 일제의 광복권 식민지 억압에서 축구대회는 민족적인 행위를 벌여 민족의 단결을 이 민족의 살길임을 알려 나가

고 이를 통해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의해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하면서 정부는 고-연전 조정사업과 전대기전 북한 취재방문뿐 아니라 이번 ‘경-평 축구대회’를 불허하였다. 핵문제로 인해 통일을 준비하려는 민족교류뿐만 아니라 정부당국 스스로 우려

는 것이다. 이제 핵문제는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는 듯 하다. 이북의 핵사찰 제거 수용, 특사 교환,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재개 등등 이런 상황에서 핵문제 선행결 남북대화라는 논리로 대외나 교류를 독점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가 서울-평양 대학생 축구대회를 계속적으로 불허한다면 현 정부의 통일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는 핵심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정주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올바른 졸업생 환송회란?

요즘 각 과마다 졸업생 환송회가 한창이다. 보통 과 임원들이 기획하여 광고하면 학생들은 과 학생회비를 내고 참여한다. 그런데 이런 기획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졸업생 환송회가 원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원래의 목적은 이제 학교를 떠나 갖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졸업 예정자들의 진로를 축하해 주고 남은 재학생과의 친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좋은 의미를 갖는 모임에 대한 회비는 최소 1만5천원, 이런 적지 않은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이 물음은 어찌보면 불필요할지 모르다. 당연한 것처럼 이 돈은 유혹에 쉽게 부어진다. 마치 모든 대학문화의 침범이 슬러하는 듯이.

이유정
(인문대 국문과)

정외과 모의국회를 준비하며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정치학도의 2학기는 그리 여유롭지 않은 시간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실험실습의 장으로 모의국회를 준비하면서 올해 9월 국회를 맞는다. 이는 왜의 커다란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교수님 대학원선배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문민정부가 불리는 현 김정권 개혁정책의 허와 실을 우리 정치학도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냉정한 청원의 눈으로 조명하려 한다. 특히 현 정부의 개혁작업중 가장 혁명적이라 불리우는 금융실명제와 현 정부가 명확하게 군사정책과 단결의 선을 긋지 못하는 군비의 2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대민국

최순홍
(사회대 정외과 학생회장)

오늘을 사는 동국인 — 안재환 동문



“노동은 인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 한테는 민주노동자회 대표이자 수도권노동단체 연석회의 사무국장인 안재환 동문.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체로서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노동에 의한 창조적 기쁨과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77년도 본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임명 ‘목요회’ 사건으로 4백일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중심임을 느껴 출소후 공작장, 공장, 직업훈련소 등을 돌며 ‘노동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노동자의 함께 살아왔다’는 안재환 동문.

이 사회의 건설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자주 민주통일 실현의 주역으로서의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에 살아왔지만 가족들에게서 ‘일생에 도움이 안된다는 질책’인 투쟁과 동료들간의 갈등 등 운동자세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사소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힘들었다 안동문은 말한다.

“살다보니 머리가 나빠졌나봐요. 감옥에 한번 다시 들어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에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이타적이고 집단과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당부하며 안동문은 남다른 뜻으로 웃음을 짓는다. 쓸쓸한 가을바람을 등지고 안재환 동문은 ‘소박한’ 노동자의 꿈을 위해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고려대로 걸음을 재촉한다.

(곽주영 기자)

동문칼럼



박 배 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산실-김영희)

나는 요즘도 학교 근처에 가면 마음이 가볍고 조금은 흥분된 감정을 느낀다. 특별히 남다른 학창시절을 보낸 건 아니다. 그건 아마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약간 흐릿하고 포근한 감정이랄까 그런 것 같고 비슷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몇번 있다. 그 중 하나가 긴 학창시절 이후에 다가오는 세세일 것이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대학시절에 느끼는 행동의 자유와는 안경을 하고, 미친듯이 소리치는 말

없는 것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어 보여 줌으로써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쉽게 나를 찾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이곳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자신도 잘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많은 분야에 여성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여성들에게 있어 교육의 기회는 평등할지라도 취업의 기회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러나 ‘프로’는 아름답다는 선전 문구와 같이 평등직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나에게 웃음을 주는 한가지 이야기가 떠오른다.

“프로는 아름답다”
꿈을 펼칠 영역을 확보하라

람시계를 끄며 멀어지지 않는 눈꺼풀을 하나씩 잡아올리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으로서는 삶을 살아간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는 조건을 박탈 당하는 것과 같다. 평생 직장으로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축되는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꿈을 제약하고 타성에 빠지기보다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여주고 너무 잘나서 감추수

해줄 수도 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뛰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는 생활이지만, 또한 밀린 천이라곤 통나무 밖에 없는 직장인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일 것이다.

직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면 부여되는 교육, 연수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만큼 직장인들도 새벽학원을 수강하는 등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요즘 동학은 운동 선거의 열기에 싸여있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하지만 지나호 동대신문은 색다른 기사를 실고 있었다.

“무허가 판자촌 딱지 떼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가 바로 그거다. 지금까지 동대신문은 빈민지역에 대한 기사를 거의 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나호 동대신문은

빈민지역 생활상 잘 반영

미안이라는 모습엔 등이다. 이러한 재개발의 모순을 지적해 주지 못하고 재개발로 인해 영구임대 APT에 살게된 소수의 사람들의 상태만 보도되었다.

다음부터는 빈민지역에 대한 폭넓은 기사가 실렸으면 하는 게 본인의 의견이다.

꽃마을 아이들 이야기 돋보여

가사에서 빈민지역 아이들의 생각이나 생활 및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 빈민지역의 장점 단점 및 생활태도를 잘 반영했다.

하지만 한가지 흠을 꼽는다면 서초동 꽃마을 주민들이 판자촌에서 영구임대 APT로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

꽃, 재개발 사업 명명이 국가에서 멀어진 다음 주민들이

소대 사진 未明

신인규
(인문대 한문학과)



이종호
(과대 통계학과 조수모니터)

목역골

- 축하합니다
 - 93몽개구름 기장인 상복이의 생일을 왕 축하해요. -93 동기가
 - 유병문학회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문학의 밤에 모두 열심히 힘을 모으기를. -동국 문화회
 - 93학번 이경희씨의 Debut Column을 축하해요. -Time만 92, 93일동
 - (산)소같은 여자 기숙사의 생일을 미구 축하드립니다. 11월 7일 이례요. -젊은 새이웃
 - 이쁜 배과대 생일 축하해. -정하, 영국, 애수기 등...
 - 1년 차이뿐이 안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몸의 3배인 명현이 생일을 축하하며. -여명의 XX와 XY가
 - 제6회 문문노(Stw)전시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컴퓨터 공학과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늘바다
 - 윤현수형 생일 축하해요! -사도회
- 수고있었습니다
 - 종준이형, 주석이형 경상대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그리고요 술 잔뜩 먹고 취해봅시다. -학술부 일동
 - 한기숙의 생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줘요. -친구 민혜
 - 구상학번의 만사내, 기동서방 봉사이행 생일을 축하드려요. -지교인 모두
 - ADRUSH여러분 수고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이
 - 문과대 선거에서 추운 날씨에도 힘을 불리며 열심히 일한 윤리혁신기운동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윤리화
 - 제4회 東史春秋를 멋있게 치러낸 史學人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경정한 문과대 학생회 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제48대 사학과 학생회
 - 가교 이선영언니 외에 93년 일꾼 여러분 정말 수고있었습니다. -기독교육과 0301가 씨요.
 - 정주영 선배님, 그동안 정말
- 알립니다
 - 11월3일 K-C-C의 창립 30주년 기념교사가 동아리방에서 열립니다. 떡 먹어요 모이스. -월어개
 - 11월13일(土) 경찰행정학과 카니발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경행 26기
 - 모이자 1301, 무억과 심포지엄! -학술부
 - 11월14일 시험을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합시다. 좋은 결과를 바라라. -김도우 23기
 - 자주적 농과대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뛰었던 우리 선운분식구들!! 다시 우뚝서며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이쁜 동개
 - 93미림·남강 동문인의 밤이 11월9일(土)pm6:00에 용산국방회관에서 있습니다! -회장 언제나 청춘
- 그리고...
 - 성민이 형이 밤 공짜로 주고 잠 공짜로 재워주는데 간대요. 건강하라고 전해주세요. -14기
 - 영학, 상원 님들 시험 잘 나왔으면 좋겠다. 미안하구나, 선배로서 할 말 없다. -선배 形
 - 사과대 정태, 정훈 둘다 열심히 뛰었던 것이 좋더구나.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내년에도 꼭 지켜주세요. -사른스트과 레즈비언
 - 11월13일(土) 야간강좌 영문과의 최대행사 ‘영문인의 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황비홍
 - 주원아! 군대 잘 다녀와라. 4년간 수고 많았다. -사법대 80동기들
- 하드합니다. 정말 멋진 선배님! 사랑합니다. -고미사 후배
- 한문학과와 새로운 학회장 최진규선배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드립니다. -1학년 일동
- 사랑하는 옥이오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추니와 민이
- 모리오빠씨의 생일(10월31일)을 축하하며 알게 되어서 무척 기뻐요. -수제자들
- 11월3일은 통통해서 믿지 않은 석이의 스무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널 아끼는 친구가
- 전산과 최대의 학술제인 라오콘(Laocoon)의 새로 태어난 축하하며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전산과 축산대
- 중문과 배봉철과 권인주의 연악식을 축하합니다. -양조장 035Team
- 사복과 윤경이의 생일을 무진장 축하하며 조수의 생일도 함께 축하해요. -1美
- 국문과 1학년 정은이의 생일

- 현대동문회가 11월5일 졸업생 환송회를 하오니 많이 오세요. -7회 기장
- 전산과가 학술제 첫날인 4일 ‘한메타자경시대’를 해오. 많이 참가하십시오. -전산
- 중문과에서 11월17일 소강당 1에서 ‘신용가야’를 합니다. 많이 오세요. -1中
- 열심히 합시다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모습으로 저울로 가자. 수습들이. -시림
 - 동국 Youth -hostel의 제3회 회장으로 선출된 2기 이창에 축하하며 더욱 발전된 동아리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전2대 회장
 - 열심히! 11월7일 고시반 모의 시험을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고시반
 - D·K·B·S의 12기를 힘내라. 동서서 열심히. -K·J·H
- 그리고...
 - 정은아, 네가 그림구나. 빨리 만나고 싶다. -은영
 - 마침내,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좋은 성적으로 취업고시를 극복하자. -역대 석강의 부장들
- 알립니다
 - 불교학과에서는 11월4일 성진동 ‘그네’에서 일일차트를 합니다. -기욱
 - KUSA에서 11월6일 이메일제를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KUSA인

온 방 골

- 축하합니다
 - 11월7일 고고미술학과 하진호선배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문과 1학년 정은이의 생일

20세기 마지막 10년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이른바 협동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핵무기 확산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공방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쟁적 축적 구조를 도덕적, 이념적 명분으로 은폐시켰던 냉전 구도가 종언을 고함에 따라 강대국 대 약소국이라는 국제사회 본래의 이분법적 구도가 핵무기라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핵무기 확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공인된 핵국가인 중국이 유폐된 유체 실패와 때를 같이 하여 핵무기 실험에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보이듯이, 강대국 논리가 가장 역효과를 통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핵안정협정 체제를 유지강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IAEA의 기능과 역할 논리에서 이같은 강대국 논리는 가차없이 드러난다. 즉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공인된 핵국가의 핵무기 제조 및 폭발 실험에는 수동적 제재만을 가할 수 있는 반면, 핵무기를 새롭게 보유하려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는 등, 국제법 상의 평등 원칙이 크게 위배되는 논리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을 위시한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은 세계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며,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은 중대한 국제사회적 범죄행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미 인류의 존엄을 좌우할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소국들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위협성 내지 관리능력 운운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떤 도덕과 명분도 있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IAEA와 유엔 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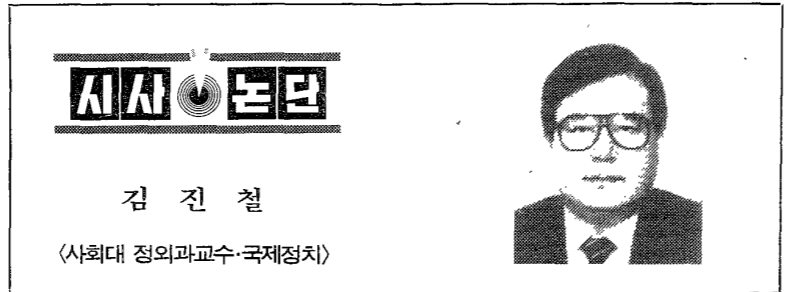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반도를 국제뉴스의 초점으로 몰아 넣는 것도 결국 이같은 불평등한 국제질서의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대국의 의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핵무기 제조능력을 가진 국가, 근대국가(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 제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각의 주변국들이 핵무기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포기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핵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질서 그 자체는 끊임없는 핵확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같은 핵무기 확산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통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리라는

일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핵무기를 정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제사회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일본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등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이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린 사실에서 살펴지듯이, 인제에 핵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 또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생존자의 일부와 그 자녀들이 오늘날 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보다 넓게는 전세계에서 핵무기에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기도에 반대하지만, 한반도를 포괄하여 인류를 핵전쟁에 몰아 넣을 수도 있는 핵보유 강대국과 그들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질서에도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하고 그에 성공한다고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발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국가간 체계를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환에서 등장한 핵무기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치유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질서가 비교적 평화적인 경제적 메카니즘에서 비경제적인 정치·군사적 메카니즘의 지배로 옮겨 가는 추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제질서의 실제, 자본주의의 기율에 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문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김진철

(사회대 정의과교수·국제정치)

강대국 주도 국제질서 유지의도

핵금지 압력에 숨겨진 실체

국가), 연구용 내지 발전용 원자로를 가진 국가 등을 고려할 때, 강대국과 국제기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핵무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중앙적 권위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은 사실상 무용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차 대전 이래, 핵무기를 축으로 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해 온 국제질서에서 각

낙관론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핵억제 효과 그 자체의 문제, 기술적 한계성, 인류의 핵불포화, 인간의 가치박탈의 가능성, 더 나아가 인류의 절멸이라는 제앙의 눈으로 깔릴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다.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형적인 강대국 논리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IAEA의 북한 핵사찰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흥건 내지 강경책이다 유화책이다 하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논의의 대상

임용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고시경쟁으로 입시학원화된 사범대 올해 전교조복직등으로 적체가중 교육과정개편-비사범계 교직원폐지돼야

올해 임용고시의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고 있어 교직원들을 희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일괄복직이 교원증원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낳는 한편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교원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임용고시 발표를 미루고 있어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대 학생들은 수급준절위원회 설치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수 동결철폐를 주장하며 교육부 항의방문에 이어 지난 22일 열린 비상학생총회에서 79%의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결정했다.

교대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 결정은 전원이 유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4학년도부터 국·사립 구분없이 완전 공개 전형토록 한 임용고시는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고 문교부는 곧이어 "교원 임용고시제도를 당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해 교직원들이 막혀 있었던 사립사대생들은 공식적인 임용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자족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3년간 실시된 임용고시의 실패는 발령이중직제를 심화시키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국·사립 차별철폐도 아닌, 임용고시가 결코 사범대의 완전한 교직원출신의 대안일 수 없음을 드러냈다. 임용고시의 시행은 '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교육대개혁을 주장하며 지지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위기의식을 가진

정권의 교원통제라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국립 사대만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 교원을 확보하기위해 생겨난 사립사대는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양성기관 설립에 따라 질적 저하와 교원적체 문제를 야기했다. 임용고시는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었으며 교직원출신을 단지 예비교사의 능력으로 치부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학내 민주화관련 학생들의 교직원출신의 길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임용고시이후 '사범대가 고시경쟁으로 입시학원화 되고 있다는 말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사실 졸업을 앞둔 한 4학년생은 "자기, 지식위주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다보면 고3때도 되돌아간 기분이다"고 얘기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마다 졸업하는 사범대생과 교직원과정 이수자의 규모는 4만명으로 현재까지 임용

되지 못한 수는 1만9천여명이다. 현재 본교의 교직원출원 희망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백여명이 교육특강을 수강하고 있어 실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범대학생은 "교원임용도의 대치된 공신력을 지니고 절대평가되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밝히며 "사대생만이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대생들이 이처럼 비사범계출신생의 교직원출신을 반대하고 있는만큼 교육부에서도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원출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범대가 올라온 예비교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또한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사협)는 올해 2월 '올바른 교사의 양성 및 임용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소유'를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서사협 연구소유 성과로 마련된 민주적 임용제도는 '완전 의무평형제, 사립학교 임용특례 공석화, 장기적인 교사수급정책에 의한 사범대학 정원 조정 등의 제반조치를 시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전 모교등학교 한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이 19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어난 예에서 알 수 있듯 교사의 무담을 가중시키는 교원수동결은 철폐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별지 못한 상황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일괄복직이 내년 교원증원수에 영향을 미칠지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교육재정 계획, 교원수동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현 교육계에서 민주적이고 올바른 임용인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 지식과 암기위주로 평가되는 현 임용고시제도를 보완할 올바른 임용안이 요구된다.

사설

변화와 원칙

변화를 얘기하는 때이니만큼 원칙을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 혁신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코 과거를 논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없다.

64년전 오늘을 미래의 지향을 세우기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날이다.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치하에서 전개된 3대 민족해방운동의 하나인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던 1929년 11월 3일, 이 운동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발적인 한-일 학생간의 충돌이 시발점은 아니었다. 이미 조직적인 항일운동의 역량을 갖춘 학생비밀결사가 있었고, 반제운동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 의해 언젠가는 필기되고 말 정의의 발로였다.

수 많은 가치가 존재하는 지금에 있어 당시의 운동론이나 지향을 되새기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일런지 모른다. 또한 엄중했던 민족의 위기시대, 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이라는 단일한 운동의 지향을 지금에 꿰맞춰 논리를 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청년학생에게는 정도의 차이를 떠나 정의에 대한 실천지향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4년전의 그날이 학생의 날로 제정되어 역사적 성과를 인정 받듯이 이후 독재군부세력에 저항한 4·19 6월 항쟁을 통해 보여준 청년학생의 위기는 민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이어져왔다.

이러한 사회와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 되어온 청년학생의 의기와 최소한의 가치지향이 오늘에 와서 무너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끊임없이 학원을 대상으로 쏟아지는 사회의 질타와 합리주의로 포장된 개인주의, 그리고 이어지는 학생회의 위기. 얼마전 학내에는 이러한 위기의 담론을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먼 이틀동안 전 이문옥감사관의 초창강연회에는 고작 3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고 콘서트장에는 대중가수를 보려고 모여든 9백명의 학생들이 2시간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듯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제 부정해오던 신세대를 긍정하고 있다. 신세대의 규정이야 어떠했던 어느새 많은 이들이 양심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보다는 대중적 호기심의 대상을 보는 것에 만족해 한다.

어쩌면 사람 모이기 힘든 지금의 세상에 재미없는 강연회에 30명이나 모인 것을 기뻐해야 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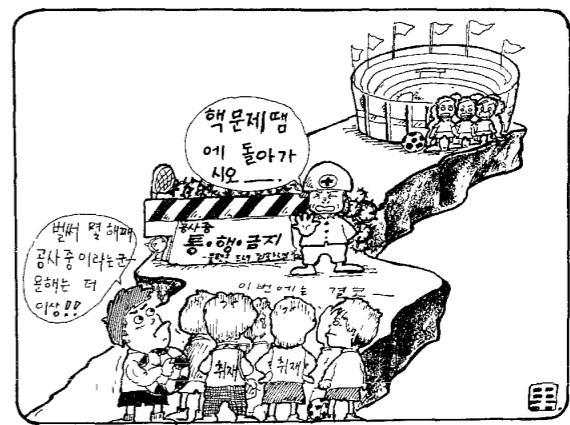
최근의 학생회선거전에 자주 등장하는 '변화와 모색'은 분명 신세대유권자를 겨냥한 것이다. 합리와 개인, 자유 등으로 치장한 신세대의 호응을 받기 위해 '대중속의 학생회'를 주장하고 있다. 신세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도 못한 채, 신세대임을 자처하는 집단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학생회에 무관심한 유권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대중과 함께 하는 학생회' 다양한 이해와 부응하는 정책은 이미 과거에도 제시된 것이다. 다만 일부학생들의 무관심속에서 떠돌기를 당했을 뿐이다.

오늘날 동양청년의 담면과제는 64년전 선배들의 의기를 되새기며, 학생회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이 과연 신세대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인지 판명하는 일이다.

東國漫評

김성남



◇ 지식과 암기위주로 평가되는 현 임용고시제도를 보완할 올바른 임용안이 요구된다.

공 고

'9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93. 11. 15(월)~11.19(금) 5일간
2. 수강신청사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학과
3. 대 상: '94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전원
4. 유의사항
 - ① 교과목의 학수,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②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기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 ③ 제1학기 개인별 종합강의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 바람.
 - ④ 교학과 및 학과에 배부된 종합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기 바람.

1993. 11. 1

교 무 처 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1. 대상: '93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원과정 이수자
2. 자격
 - 가. 교직원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 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 '93.11.22(월)~11.24(수)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소정양식)
5. 배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유의사항: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사 범 대 학 장

취업특강 안내

'94학년도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취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내용: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설명회
2. 대상: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3. 일시: 1993.11.10(수) 14:00~16:00
4. 장소: 동국관 L301
5. 주최: 학생처 취업과

※당일 자료집 배부함

학 생 처 장

병무청 이동병무상담센터 개설

병무청에서 본교 재학생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병무상담센터를 개설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일 시: '93. 11. 9(화) 09:00~17:00
2. 장 소: 혜화관 1층 노조사무실
3. 상담기간: 중앙병무청 공모실
4. 상담내용:
 - 가. 병역에 관한 제반문제 상담
 - 나. 재학생 입영원서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

병 무 청 장

여기 조용한 동국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학교재권발행안내

- 발행목적: 교육환경개선(도서구입, 실험실습기자재구입,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 발행단위: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 금리: 무이자
- 매입처: 조흥은행, 서울·경주캠퍼스 경리과
- 계좌명: 313-03-001769(조흥은행)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인갑

- 상환시기: 재학생은 졸업후, 동문·대학원생은 2년후
- 안내처: 기획조정실 기획과(02-260-3019), 기획홍보과(0561-770-2019)

기획조정실장



역사속의 동국대

글쓰는 순서

1. 일제하 중앙학림의 민족해방투쟁
2. 사상의 불꽃, 김중태
3. 독재에 쓰러진 젊음, 김중배
4. 평범한 투사의 삶과 죽음, 노일현

○...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부터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70년대까지 수...
 ○...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투쟁해왔다. 그때마다 동국인은...
 ○... '오직 의기에 찬 젊음으로 대열의 선두에서 왔다. 64년전 민족...
 ○... 해방을 꿈꾸던 광주학생운동의 시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 갈망하던 동국인들을 찾아 본다. (편집자) ○...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이 있기 하루 전인 2월28일 밤, 계동(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의 자택에 일단의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상환, 백성숙, 김법린, 박영희, 김상현, 오백인 등으로 기미(己未)해로 개교4년째를 맞은 본교 전신 중앙학림의 학생들이었다. 당시 중앙학림학생들은 '유심회(惟心會)'라는 학생회를 조직하여 불교연구회와 민족사상고취회를 중심으로 교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가장 열성적이었던 신상환이 회장을 맡고 김법린, 김상현, 정병권 등이 실무를 담당했던 유심회는 1918년 만해의 지도를 직접 받음으로써 그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뚜렷한 민족관을 다져가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만해가 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하던 출판사인 동시에 자택인 계동의 유심사에 자주 드나들었다. 2월28일 이날은 내일(3월1일) 탑골 공원에서 있을 독립선언식에 대비하여 만해가 학생들을 불렀던 것이다. 당시 인쇄된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측으로 나뉘어 배포를 책임졌고 만해는 불교계의 책임자였다. 1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자택에서 만해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일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1만장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경성과 지방에 가서 배부도

록하라"라는 말을 들었다. 만해는 이어 극비로 진행된 독립선언 거사의 경위를 설명하고 '서산선사와 사명대사의 법손(法孫)'임을 명시하여 불교청년의 사명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제 사태의 긴박함을 깨달은 학생들은 유심사를 나와 그길로 인사동에 있는 범어사불교포교당으로 가서 비상집회회의를 열고 다음 날의 일을 계획했다. 이날 학생들은 만세시위에 대한 조직적 준비를 진행하고 시위후 지방에 널리 확산시키는 일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그날밤인오 시내사찰과 학교, 시민들에게 거사를 알렸고, 만세시위후 지방확산운동은 사람을 중심으로 벌이기로 하고 범어사에 김법린, 김상현을, 통도사에 오백인을,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경성북쪽에 김대용을, 그리고 전라도에 정병권을 각각 보내기로 하였다.

이후 3월1일 아침이 밝았다. 학생들은 아침일찍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발표가 있을 태화관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만해가 민족대표로 연결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파교다공원으로 이동했다. 공원에 모인 학생 시민은 2만여명이 넘었다. 이날 시위에 학생들이 전한 급보를 듣고 나선 시내포교당과 문밖 사찰에서 모인 승려, 불교신도들이 1만여나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중앙학림의 학생들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위가 시작되

애국·애불정신으로 항일투쟁 이끌어

만해 지도 받은 김법린 등 지방 만세시위 주도



3·1운동 당시 종로거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군중들. 3·1운동의 영향으로 한인 무장 세력은 국내 민족적 직전을 전개했다.

자 누군가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이어 '대한독립만세'를 선포했다. 중앙학림학생이었던 김법린(법명=홍승, 90년 입적) 선생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시위는 계획대로 4개조로 나뉘어 1조는 중앙청, 2조는 서대문, 3조는 경동 미국영사관, 4조는 남대문쪽으로 행진했다. 중앙학림 학생들은 각조의 선두에서 시위대를 끌고 갔다. 시위를 마친 우리들은 곧장 선언서를 나눠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당시 지방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3월1일 오후 5시 시위대가 자진 해산 한 이후 중앙학림 학생 대표들은 농민과 노동자로 변장하여 일경의 삼엄한 경계를 피해 아령열차로 탈출한 바 지방 사찰로 향했다.

이렇게 중앙학림학생들에 의해 진행된 지방 만세시위를 부산·경남 3·1운동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앙학림 대표들과 불교전교장 원생, 지방학림학생들은 불교전교

장원의 지방학림이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두학교 졸업생을 위한 송별회자리에서 의거의 목적과 방법들을 열렬하게 이야기하여 즉석에서 절박한 지지를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사적으로 18일 거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방학림 3년생인 허영호에 의하여 독립선언서와 격문 1천장이 준비되었고 태극기도 큰 것 1개와 작은 1천여장이 주동자들에 의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후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18, 19일 양일간에 걸친 거사는 격렬했으며 일경의 무력 탄압 또한 극렬했다. 이때 주동자인 중앙학림대표 김상현이 검거돼 징역 3년을 부여한 것을 비롯 30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

이날 범어사 의거가 있는 51년 뒤인 70년 3월1일 이를 기리는 3·1운동 유공비가 금정중학교에 세워졌다. 이 비에는 당시 이 의거의 주역들이던 중앙학림·지방학림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편 3월 중순경 일경의 검거방을 피한 학림학생들과 지방에서 이들에게 고무대 상경한 청년승려들은 신상환 자택을 본부로 삼아 앞으로의 운동전개를 모색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분석 종합하여 연락지도했으며 다수의 운동자들도 모였었다. 이러한 중 4월 중순경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신상환, 백성숙, 김법린, 김대용 등은 상해로 밀려나왔다.

약 20일만에 김법린과 김대용은 임시정부의 국내관객으로 다시 국내로 돌아와 불교계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된다. 그들은 해외소식을 신속히 정확하게 전달할 사명을 느끼고 '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시문을 비밀리에 발간했다. 자신들이 직접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배회했던 이 비밀보도지는 당시 해외소식에 궁극적으로 국내독립운동에 격적임을 한 화와 격려를 던져주었다.

또한 박영희를 비롯해 허황, 장



조심 등은 광복의 유일한 길이 무력양성이라 생각하고 이시영이 세운 만주의 군관학교로 향했다.

이후 1920년 6월 28일에는 중앙학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불교청년회가 결성됨으로써 한국 불교의 해방투쟁이 활성화되었다. 이어서 1921년에 만해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유심회'가 발족되었다. 중앙학림 학생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의 조선불교탄압정책에 적극 항거하였다.

이후 1928년 만해는 비밀결사체인 만당(萬黨)을 결성했다. 이때에도 중앙학림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영희·박윤진등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불교인의 항일 민족해방운동과 그 계를 같이 했다.

한편 파리에 유학중이던 김법린은 1927년 2월5일 벨기에 브뤼셀의 에그렌 공원에서 열린 제1회 좌파 반민족 반제국주의동맹 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해 인도의 비무장 22개국 대표 1백47명이 참가한 자

지난달 27일 학생회와 총학생회 주최 제1회 청년만해강좌가 개최되어 이문욱(전국불교 운동연합 공동의장) 전 감사관의 강연회가 있었다.

지난 90년 5월,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영리 부흥재단 파다소유 실태와 업계의 로비에 밀린 감사원의 감사단비리론 언론에 폭로, 이 감사의 깨어있는 양심이라 불리우는 이문욱 전 감사관이 53세의 나이에 '정의의 실천과 인권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위해 동양을 찾았다.

강연시간 3시, 50명도 채 못되는 학생들의 침묵이 이루어진 강연회에 민망해하는 학생회관계자들의 모습을 달래기나 하듯 이 감사관은 "요즘 추세인걸요 이정도라도 봐주었으니 다행이죠 한 사람이 와도 강연은 합니다"라며 씩씩한 웃음을



이문욱 전 감사관

지어 보였다.

정의의 실천은 이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직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30년동안 공무원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꼭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공직자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비리없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심부름꾼이지 사회계층의 선봉이 아니라며 최근 공직자 계산공개에서 나타난 비리에 "국민

"정의사회 국민이 만든다"

을 보기가 민망하고 면목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날에 그 러왔듯이 그는 그가 걸어갈 길을 위해 오늘도 투쟁을 한다.

자신이 비리를 밝혀냈음에 '적부상 비리 누설죄'라는 명목으로 구속당하고 감사관직을 박탈당했던 것처럼 현공직자 사회가 정의의 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국민이 올바른 공직자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국민이 제도적으로 공직자가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며 '양심선언자보호법' '행정정보 공개법' 등의 제정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전환하든지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들은 자신이 걸어온 3년4개월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

그에게 최근 희소식이 들려온다.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3년4개월의 가슴앓이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어머니의 지극한 불신속에서 자라온 이문욱이 깊은 그 해직이후 불교 재야 전체 민주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민주와 운동에 앞장서고 올해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되어 10.27 범람 진상규명을 위해 거의 매일 청야대를 오간다.

이직도 끝나지 않은 공판과 재야 운동에 계속하는 요즘 폭로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차이가 있는지 문민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는지만 질문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다 씩씩한 웃음을 내보이는 이 감사관의 모습은 근본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권에 성이 차지 않는 듯하다. (양수정 기자)

동막로

"내게 말해보렴 누가야! 넌 왜 그렇게 큰 야망을 갖고 있니?"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동막로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쓰여 있는 현수막이 지난 2일 걸려졌다.

지난달 치뤄졌던 제26대 총대의 원외 정·부회장 선거에 걸렸던 현수막과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달라졌다.

지난 총대의원회 정·부회장 선거 때 쓰였던 현수막의 경우 각 후보 진영의 정책들이 명확히 표시돼 정책선거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이번 현수막은 후보진영의 정책이나 공약을 찾아볼수도 없었음은 물론 애매모호한 문구로 지나가는 학생들을 가우뚱하게 하고 있었다.

정책선거

이 현수막을 보고 한 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 현수막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인지 잘모르겠어요. 하지만 후보자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주영·야간부역4 이하 중선위)는 이 현수막에 대해 "중선위에 새내우고 있는 정책선거의 기초에 배치되는 선거 홍보물인 것 같다"며 "후보자 측의 입장을 들어봐도 이 의도를 알 수 있었지만 후보선거가 아닌이 선거시행세칙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현식의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자제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선거의 모습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앞서 중선위는 예년의 파일 흔적들을 지양하고 올해에는 신의미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정책선거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중선위의 의지들은 개진된 선거시행세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중선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후보들 원외의 모습들은 학생들에게 정책선거, 정책선거의 의지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석종 기자)

94학년도 전기 각대학원 학생모집

동국대학교
민족의 대학 · 세계의 대학

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2.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 (다)구술고사 (2)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 실시함.

나. 박사과정 (1)시험과목: (가)영어 (나)전공(공통, 세부 전공) (다)제2외국어(해당학과에 한함) (라)구술고사 (2)시험내용: (가)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 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 실시함. (나)제2외국어: 부파학과: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법어, 한문 I, 한문 II (불교학부), 중국 이중과목(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 I은 철학과(동양철학 전공), 한문 II는 불교학과 지원자에 한함)

3.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93.11.2(화)~11.9(화) 나. 원서접수기간: '93.11.8(월)~11.9(화)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 및 장소: '93.11.9(수) 10:00 동국대 문의전화: 260-3093-3094

불교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관리사과정

① 불교학과: 불교학, 신학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부처학, 포교학

2. 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관리자 과정: 조계종의 대덕 법계종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93. 11. 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과정: '93. 11. 25(목) 14:00
 ② 관리자 과정: '93. 11. 26(목) 13:00

5. 전형방법

① 석사학위과정: 영어, 전공, 면접
 ② 관리자 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① 조계종 재적승려, 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60-3097-3098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공행정, 지역개발,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공인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④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8(월)~11.23(화) 본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93.11.27(토) 오후2시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① 공무원에게는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 30%)
 ② 유망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다수 장학 특전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행정관리사과정

1. 입학자격: 정부각기과의 5급이상공무원, 각국의 영관급이상 장교, 정부부처기반의 임원,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지도급인사, 기타 본행정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93.11.18(월)~12.7(화) 본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93.12.11(토) 오후2시 본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전화: 260-3101-3102

기호1번

류치건·박정진 조

세계로 가는 통일시대 민족대학 건설을 다짐하라! 십자매의 감동 만해청년아!
1만동학청년 자성이여!
이제 우리 삶의 설계에서 분단은 깨끗이 지우시라. 민족사의 대전환기!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우리가 우뚝서야 합니다.

1906년 민족사학으로 탄생한 동학의 대지위를 확보하는 동안 1만청년의 지성과 패기를 밑받칩니다.

동학의 중흥을 위해서라면 청춘을 다 걸겠다든 무슨 맹서로 총학생회, 부학생회, 교우회 등 입학후반 기호1번 류치건 박정진.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21세기 시대의 개척자가 되자!

동구와 소련의 몰락, 문명정권의 탄생, 소위 '신세대'의 등장속에서 대학사회에도 변화

자주적 총장선출과 재단이사 교체 전학과 평가인정제 대비 시설확충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는 모습이 부족했고, 선진국의 공개가 안 이루어졌으며, 평가농성등의 80년대 투쟁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중위주, 큰 싸움 위주의 낡은 모습 또한 비판받아 할 점입니다.

1만청년지성에 의거해 94년 민족대학건설의 선봉에 설 수 있는 학생회는 학생들의 생활 작은 것에서부터 진실한 감동을 주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대의명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문제, 도서관의 정서확충에 먼저 신경을 쓸 줄 아는 학생회, 강의실과 도서관의 생활을 알고 무엇이 문제이고 총학생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호소하는 간부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개선운동을 정기적으로 벌여내고 전체학생대표회의, 학생총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확대 할 것입니다.

신실을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서 진보적인 학문과 진취적인 연구열을 높일 수 있는 재단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진정 민중이 누리는 참된 개혁과 통일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93년은 장면 장천 이후 두번째의 문명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많은 개혁의 조짐들이 신문 지상을 메우고, 금요일정예까지 실시해 여당과 야당의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치는 김영삼 정권이 국민들에게 배종어준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특자치하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거리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을 바꿨던 국민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도리가 없는 지배정권의 수동적 변화입니다.

이제 1년을 끌고 왔던 개혁은 TV를 보며 기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등

해 이루어지지 못한 정평측구대의 내년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93년부터 부교역과 편지교류가 있는 '김종태대학'을 94년 9월 백상문화예술축전에 초청하여 한국청년과 북한청년의 직접교류를 실현할 것입니다.

불신과 오해를 덜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요즘 자리가 빈 재단 이사로 '안태환'과 '서문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교조 탄압주범이자 학원책임자 판사로서 총장출신인 학교발전을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학생회의 힘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야기된 학생복지위원회의 문제는 이제 1년만 원이나 들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정이 아니라 경영상의 잘못과 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완전 혁신입니다. 인

종단내 개혁세력 연대로 재단혁신 교과과정 개편과 강의평가제 실시

기호2번

박현식·고정환 조

변화와 개혁의 21세기, 진보시대를 개척하라! 청년동약이어!

인생하십니까? 급속한 변화와 개혁의 눈부신 역사를 발발한 행보와 당당한 기상으로 이끌어 가고자 제26대 총학생회, 진보적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호 2번 박현식 고정환이 인사드립니다.

21세기는 변화와 진보의 시대입니다.

93년 한 해는 그 시작부터 충격적인 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급작스런 변화라기보다는 기간 모여 있던 여러가지 변화의 맹아들이 그 싸움의 파고에 한꺼번에 꽃을 피워낸 것처럼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성장하는 변화와 개혁의 결과물들이자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문명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끌어올려, 전방적인 변화와 개혁의 결과와 성과물

김영삼 정부는 교육공약 실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4대 대선 공약으로 김영삼은 사학개혁을 GNP의 5%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GNP의 5%수준의 재정이 확보되면 경우 산술적으로 판단해도 대학당 3백억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학개혁의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93년까지의 GNP 5%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개혁적인 조치가 '중학의무교육 확대유보', '초·중·고 교육육성회비지 유보', '납입금의 인상', '명준화 해체'를 통한 납입금 '자율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포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교육개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중성과 학우들의 창의성에 기초한 다원적 진보공공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가지 투쟁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대학이 기능인양성소, 취업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통일한국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적 진보공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재단혁신투쟁의 새로운 관점을 정립할 때입니다.

학우 여러분! 25대 총학생회는 93년 160일이 넘는 재단혁신투쟁의 대장정을 기록함으로써 88년 이후 최대의 구교 투쟁을 전개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당국과 재단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단혁신투쟁의 관점에 명백히 한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학교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3차 회담 방식의 대외 활동은 그 진위와 여부를 떠나서 학생회가 오히려 비활할 수 있는 것이며, '최후통첩'이라는 무명투쟁방식의 활동은 학우들에게 투쟁에 대한 환상과, 근거없는 낙관을 불러일으키거나,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허무주의를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5대 총학생회와 구교투쟁 중간중간을 통해 자료집 중에는 "나쁜 것을 총장선거를 통해 학교발전세력과 학원집체세력을 분열하고 개혁임을 몰을 것"과 "학교당국이 재단의 그늘을 벗어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박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단과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 중에서는 학교발전 세력과 전체세력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수세력입니다. 굳이 이를 구별하는 것은 학우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보수세력들 중 특정문



는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지성이여!

변화와 개혁이 4천만 민중과 1만 동학청년지성이여! 미래의 희망과 진보 그리고 현실적인 전진을 가져다 주는 기를 바로 보여야 합니다.

참변화와 진정한 개혁은 말이나 글로 피치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자주적인 삶들이 보장될 환경과 조건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대학은 배움에 있어 내용이 바뀌고 가르치는 사람의 질과 교육의 환경이 더 나아져야 하고, 우리가 졸업할 때 발전적인 사회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민족과 조국에 이바지 해야 합니다.

1만청년지성이여! 여러분이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우뚝 서 민족대학 건설로 나아가는 지표를 바로 세우세요. 그것이 동학의 참된 변화입니다.

십자매의 감동, 1만의 지성이여! 일심단결하는 생동하는 총학생회를 건설하라!

올해 25대 총학생회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의견개선운동의 심의와 학생총회 사수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원의 대개혁! 21세기 민족대학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투쟁에서 재단이사 부분회전, 동학금 합의, 동국발전위원회 구성 등 동국총총합의대개혁의 합의와 교수, 직원, 석학회 등이 재단혁신에 동참한 중요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94년에는 이러한 '합의'의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의 모습이 학우들 생활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는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상반기의 동국총총합의대 개혁과 11월 총장선거 대비 등 큰 투쟁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속의 학원자주투쟁으로 교과과정 전면개편과 강의평가제 실시, 94년 전학과 평가인정제 대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는 대학 안에서 여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성과와 진보적인 정책결정, 정치분화를 높일 수 있는 일간지 발간등을 통해 동학청년지성의 정치의식을 높일 것입니다.

순환활동 뿐 아니라 공장활동 등, 도시민간지원활동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발전시킬 것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통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통일전쟁을 앞당기기 위한 전진에 생동하는 총학생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올

특금을 낼때, 등교하는 자석들의 주머니에 우뚝 솟아올라 울레 그로스트를 찢어내는 참다운 개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투쟁은 거리에서 최후투쟁에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여론전을 이루고 김영삼정권이 참된 개혁을 하도록 강제해 들어가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르키는 국가로 안될, 노동조합, 안기부-국가부사를 철폐하고 남로 치안은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부의공정화 안을 이루는 경제구조조정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순환투쟁에 대한 선택으로 서야 하며 동학도 이에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10월말에 구성하기로 한 94년 동국총총합의대의 구성과 활동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을 신인대대장들에게 제안합니다.

학원의 자주화는 학우들이 철저하게 근거를 붙여야 할 일방의 주장이나 입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방식은 깨끗이 없애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생동하는 자주적학생회입니다. 십자매가 남겨준 교훈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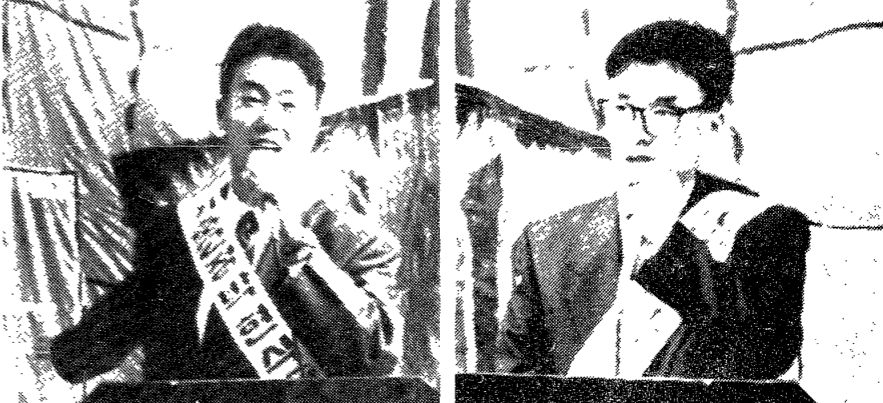
학우들을 굳게 믿습니다. 민족의 발전을 위한 민족대학 건설의 당당한 대안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류치건 박정진은 냉정한 평가로 94년 생동하는 자주적학생회를 반드시 건설할 것입니다.

지상유세

제2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달리는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치열해지는 선거의 분위기 만큼이나 각후보들의 정책·공약도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에서 오는 10·11일 있을 투표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작성한 지상유세를 실시한다.

(편집자)



25대 총학생회의 재단혁신투쟁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재단이사 비리조사와 인분교체 투쟁을 벗어나지 못한 점입니다.

학원대개혁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종단, 재단, 학교 그리고 이런 보수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권력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일변도의 투쟁은 명백히 정적화 한계가 분명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우들을 지치게 한 본질이며 보수세력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93년 재단투쟁의 핵심이 4인의 무능비리인사 퇴진을 요구하는 인물대안위원회의 재단이사 퇴진투쟁이라는 점입니다.

깨끗한 보수와 비리있는 보수, 이들 모두는 결국 학교발전에 대해서 보수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물대안 위주의 퇴진투쟁은 보수세력간의 자리싸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단 대개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안은 종단내 진보적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대연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희 박현식·고정환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25대 총학생회는 총장, 이사장, 총학생회장 3자 회담에 응

하거나 인물부과의 수단으로 이용될 의혹을 살 우려가 농후합니다.

따라서, 대외로 풀수 없는 세력에 대해 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상층위주의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대중의 역동성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3차 회담으로는 현 학원대개혁을 풀수도 없으며 방식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우리가 쓰러져가는 사학을 살리고, 진정한 보수와 지성의 사명대로 보수의 윤리적 세위나기기를 견고히 비판하며, 국가권력과 종단과 재단의 관계를 일체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으로 재계하는 것, 바로 재단혁신투쟁의 관점을 새로이 정립하여 투쟁하는 것, 그러하여 정통적인 재단혁신투쟁의 대안을 내오는 것이 바로 불교계 전체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재단을 혁신하는 통일적인 대안임을 저희 박현식, 고정환은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93년 한 해 동안 학우들과 승부여는 것이 "변화"에 대한 3차 회담이었던 94년은 그 변화의 신적한 새로운 미래를 21세기 진보공공체 건설로 그려가게 하는 한 해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경제학과: 산업경제, 금융 및 경영
 -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법 및 해운, 무역경영
 - 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경영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22(월)~11.30(화)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2.4(토) 오후 2시 본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논술형(경영학원론) 및 면접
 - ② 연구과정: 논술형 및 면접
- 특전:**
 - ① 해외자매대학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 ② 조계종계직승려, 공무원, 교직원, 공인회계사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경영관리자과정

- 입학자격:** 회사,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군공급장교 및 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기타 본정 영대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22(월)~11.30(화)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2.4(토) 오후 2시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전화: 280-3165, 3166

교육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유아교육, 상담교육
 -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산, 종교교육
- 응시자격:** 석사과정, 연구과정 동일
 - 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
 - ②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 진학 학력을 인정받은 자
 - ③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④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교의 및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15(월)~11.25(수)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2.4(토) 오후 2시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및 구술시험(전공)
- 특전:**
 - ① 본원 장학금 지급내에 의하여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조계종 계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공사립교육기관 재직 교사 및 정부행정 및 교육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함

정보산업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정보전산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편집
 -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25(목)~12.2(수)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2.11(토) 오후 2시 본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 가. 정보전산학과: 컴퓨터개론
 - 나. 신문방송학과: 논론
 - 다.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개론
 -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① 현직 언론인에 대하여 특별우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출판편집 전공자는 범우출판장학금 특전이 있음
 -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정보산업 관리자과정

- 응시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함
문의전화: 280-3113, 3115

산업기술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산업과학과: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업자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11(목)~11.21(수) 본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1.27(토) 오후 2시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①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경력자는 전형시 우대함
 -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 ③ 계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외국인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부여
 - ④ 해외자매대학등에 연수기회 제공

산업관리자과정

- 입학자격:** 중·사기업체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 공무원 및 장교, 기타 본 산업기술대학 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함
문의전화: 280-3602, 3603

지역개발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모집과정	학과	전공
석사과정	개발행정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新) *지역경제개발 *산업경영(新)
- 원서교부 및 접수:** 1993.11.15(월)~11.24(수)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93.11.27(토) 14:00 본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가.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력자 전형에서 우대
나. 공무원 전연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 지급
다.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지역개발관리자과정

- 입학자격:** 정부기관의 관리직급 공무원, 정부부서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함
문의전화: (0561) 770-2091, 2093

설화문학 통해 민중의 꿈 표출

대부분 신분초월한 사랑-하천민 신앙심등 묘사 신라인들의 진취적 정신세계 구전으로 전래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한다. 가난에 찌든 사람은 부유함을 소망하고, 신분상으로 하천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귀족계급으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고매한 인격 완성을 위해 애쓴다. 현실과 이상, 존재와 당위, 현상과 본질 등의 진부한 단어들은 인간의 삶의 양적·질적 비약을 전제할 때 그 의미가 새롭게 증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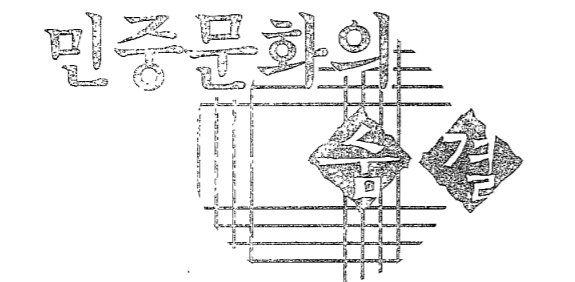
구전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온 설화문학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여 나날이 반복되는 생활에 힘과 용기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무꾼과 신녀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구전된 것은 땅 한 뼛이 없이 나무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한 젊은이가 귀족이나 부자도 꿈꿀 수 없는 천상의 여인을 만났다는 데 있다. 춘궁기를 맞아 뿔뿔이 헤어져 버려진 나무꾼보다는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 농촌의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위안을 얻고 노동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신라의 설화문학을 통해 거기에 투영된 민중들의 꿈을 추출해 보기로 하자. '삼국유사' '삼국사기' '수이전' 등에는 수많은 설화문학이 정착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와 하천민이 신앙심에 의해 구전된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춘향전의 주요한 갈등구조이기도 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계급 사회의 서민들에게 두근두근 심장하지 않는 주제였다.

선덕여왕의 미려(美麗)함을 듣고 시를 겨워 올다가 얼굴이 파리해진 지귀(志鬼)는 신라 활남역인(活男驛)이라고 단박혀 있었다. 지귀의 소식을 들은 여왕은 절에 분향하려 가는 길에 그를 부르도록 했다. 탑 아래에서 여왕의 행차를 기다리던 지귀는 잠이 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여왕은 팔자를 빼어 잠든 그의 가슴에 얹어 두고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오랜동안 번민했다. 드디어 심화(心火)가 일어나 탑을 힘써 고를 뚫고 불꽃은 화구로 변했다. 여왕은 술사(術士)를 시켜 추사(攄師)를 짓게 했고 민간에서는 이 시를 문 위벽에 붙여 화제를 막았다.

여왕을 향한 지귀의 열렬한 사랑은 현실적 공간에서 성취하지 못했으나 가슴 속의 뜨거운 불꽃이 자신의 꿈을 불사르고 화신이 됨으로써 여왕의 위로로 받았다.



2 신라 설화문학의 세계



◇빛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왕이 내리는 방향에 따라 웃는 얼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신라의 토우. 단순한 기법으로 신라인의 소박함을 잘 표현했다. 순장을 지낼때 함께 묻히기도 했다.

마 후 서방에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하늘로 솟구친 그녀의 몸은 들보위를 뚫고 나가 서쪽 교외에 이르렀다. 해골을 버리고 진신(眞身)으로 변하여 연화대 위에 앉아 광채를 발하니 그녀의 몸은 서서히 사라졌다. 천상의 음악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현실적 공간에서 노비 신분인 옥면(玉面)이 힘입어 이승에서 곧바로 진신을 구현하였다. 순바닥을 뚫어 노관을 뚫은 것은 그녀의 정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임을 감안하면 수마(水馬)를 쫓고 생취한 부처였다. 이 옥면이 설화하는 삶의 질적 비약이 용맹정진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기 구원이 신분적 차등과 무관함을 특색적으로 증거하였다.

광덕 임금 설화에서 광덕은 분향사 서쪽 마을에 처자를 거느리고 살며 부름을 미루리 삼는 것을 생업으로 했고 임장은 남안에 임자를 짓고 살며 농사를 지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광덕이 서방왕상을 목도한 임장은 광덕 아내를 찾아가 동거하기를 허락 받고 가기가 허락이 되지 않아 당한다. 법사가 정도를 구함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털어 놓는 광덕의 생활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십 년간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며 심육관법을 익혔고, 달빛이 지게되면 들면 달빛을 타고 가부좌하여 원왕생가를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임장은 부끄러움에 몸뚱이를 풀었다. 드디어 임장은 원목구어(緣木求魚)를 배우고 그 관법을 뒤야 서방왕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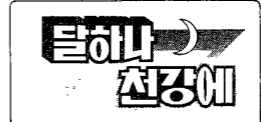
호소란 남자는 배산 후 목욕하기를 청했다. 부득이 남자를 욕수시켰더니 봉 속의 물에선 향내가 나고 물은 금색으로 변했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그 물에 목욕한 부득은 홀연히 정신이 맑아지고 살결이 금빛을 띠었다. 그녀는 관음보살이었다. 이날 부득을 조종하려 왔던 박박은 연화대에 앉은 부득을 보고 마음에 가림이 있어 성인을 영접하지 못했음을 탄식했다. 동 속의 남은 물에 목욕한 박박도 아미타불을 이루었다.

이 설화 역시 '광덕 임금 설화'처럼 참다운 수행은 외형적 생활에 있지 않고 지순하게 고요한 마음 속에 있음을 용맹적으로 역설하였다.

이 설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인들의 뜨거운 가슴은 신분의 벽을 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성취하기도 하고, 불교적 신앙으로 삶의 질적 비약을 구현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설화문학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광명의 미래로 달린 세계를 열린 세계로 바꾸는 적극적인 정신세계를 제시하였다.

김 영 동 (인문대 국문과 부교수)

회 상



정 명 호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최근 들어 서민서 걸작에는 최대 최고 바람이 날고 있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릴적에 어머니를 따라 서울 원효로에서 전차를 타고 효자동 종점에 내려 자문박 새계정을 지나 송가시에 올라가 자그마한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참배하고 노스님께 삼배 드린던 시절을 절로 회상하게 된다.

그 당시 별로 크게 보지도 않았던 법당과 요사채를 바라볼때 참으로 과학된 명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감탄하게 한다.

지형지세가 그러하고 공간도 별로 없었던 그곳에는 지금보다 대궐을 방불할 정도로 대궐의 가람배치는 상상도 못하였던 어릴적의 달콤한 그 맛을 찾을 길이 없다.

인제는 많은 참배객과 동산객이 넘쳐 흘러 스님들의 공부를 호리게 하고 손님 맞이하는 정성이 옛날 못해 다시 어릴적에 송가시를 회상하게 된다.

어릴적에 송가시에 조용함을 풍겼소리로 달달했던 그 시절이 다시 그리워 지기도 한다.

어릴적에 송가시 스님께서는 다정다감하시던 그 그리움과 한적함을 달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즐겁게 맞이 하였던 것이 아닌가.

참으로 교통 좋은 절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때에 두번 참배했던 그 시절만 못하다.

길가에는 큼직한 쓰레기 집합장 연기에 그늘린 시멘트 벽, 일년 내내 낙엽을 헤쳐가며 산길을 따라 걸을 찾게되면 어드넓은 웃는 땀에 젖고 얼굴에는 땀바가 내려 목욕하고 참배했던 그 장소는 어디가고 참배와는 관계없는 약속 떠가는 객만 늘어서는 송가시가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

대학 시절 어느 북 더위에 은사 황수영 박사님을 모시고 천안 광덕사 부처님을 참배하고 걸어서 목욕대 고개를 넘어 마곡사에 이르는 사이에 목이 말라 쓴 샘물도 목을 추기던 일이 있다.

오늘날 논문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 하였으니 그 시절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시 마곡사에는 스님이 두 세분 계시면서 황폐화 되어가는 절경을 지키려는 스님들께서는 기나적정이 생긴 일이 있었다. 잘 걸 보리밭에 생긴장에 꽃고추 몇개로서 공양을 하는 일도 격정이다.

절에 곡식이 떨어지는 우리들을 대접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는 스님이 다시 그리워진다.

마곡사에서 다시 유치를 거쳐 예산 수덕사를 찾아 갔다.

허름한 요사채에 국보 대웅전을 바라볼 때 덕숭산에 아담하고 알뜰했던 수덕사로 달려왔던 그 시절이 다시 그리워 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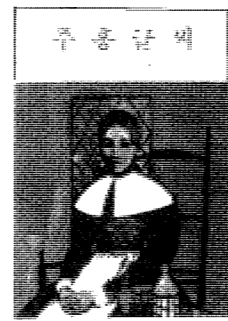
어릴적에 송가시 스님께서는 다정다감하시던 그 그리움과 한적함을 달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즐겁게 맞이 하였던 것이 아닌가.

참으로 교통 좋은 절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때에 두번 참배했던 그 시절만 못하다.

읽을 수 없는 한 권의 책 N. 호돈 '주홍글씨'

"진정한 죄인은 누구"

죄의식 마비된 현대인에 경종



주홍글씨

N 호돈의 '주홍글씨'를 처음 대하게 된 것은 예년, 책에 음주된 듯 말이 세도록 세계 명작속에 빠져 읽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때면 이 소설을 잘 이해 할 수가 없었다. 내용이 어두웠다는 기의 밖에는 없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어느 여름날, 보스턴시 정터 앞에 마련된 형마위에 에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손수 수놓은 주홍글씨 'A'자를 (간음이라는 미팅글자) 가슴에 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서있는 장면부터 있었다.

에스터 프린은 남편이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건너오는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혼자 살다가 다른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다는 죄로 가슴에는 주홍 글씨를 새긴 것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어느 여름날, 보스턴시 정터 앞에 마련된 형마위에 에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손수 수놓은 주홍글씨 'A'자를 (간음이라는 미팅글자) 가슴에 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서있는 장면부터 있었다.

에스터 프린은 남편이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건너오는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혼자 살다가 다른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다는 죄로 가슴에는 주홍 글씨를 새긴 것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어느 여름날, 보스턴시 정터 앞에 마련된 형마위에 에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손수 수놓은 주홍글씨 'A'자를 (간음이라는 미팅글자) 가슴에 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서있는 장면부터 있었다.

에스터 프린은 남편이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건너오는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혼자 살다가 다른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다는 죄로 가슴에는 주홍 글씨를 새긴 것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다시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TV 드라마를 쓰고 있을 때였다. 책에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서 읽은 나는 무척 충격적이었다.

秋

독서의 계절에 렌즈작용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
가을철 콘택트렌즈 관리법

1. 렌즈를 만지는 손은 항상 정결해야 하며
2. SPC액으로 기품을 충분히 내어 세척하고 (이때 단백질 등이물질도 제거됨)
3. 기품이 없어질때까지 깨끗이 행군 후
4. 소독은 매일매일 (열소독과 화학소독은 병행하지 않 것)
5. 착용전에 또 한번 행군고 착용할 것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매일매일- SPC액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세요!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장시간 책을 읽다보면 눈이 충혈되고, 쉬 피로해짐에 많죠? 이럴때일수록 렌즈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단백질, 눈물 등의 이물질이 렌즈표면에 달라붙어 렌즈의 산소투과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가지 계층화성제가 들어있는 중외 SPC액- 세척은 물론 단백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없애줍니다. 가을철 렌즈관리에도 역시 SPC액! 눈이 편안해집니다.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SPC액
수입원제품 • 권장소비자가격 : ₩ 5,500 (2개월분)

◇ 음부즈맨 프로그램 올바로 정착되는가 시청자 불만수렴 창구 기대 보이는 내용·질 자체평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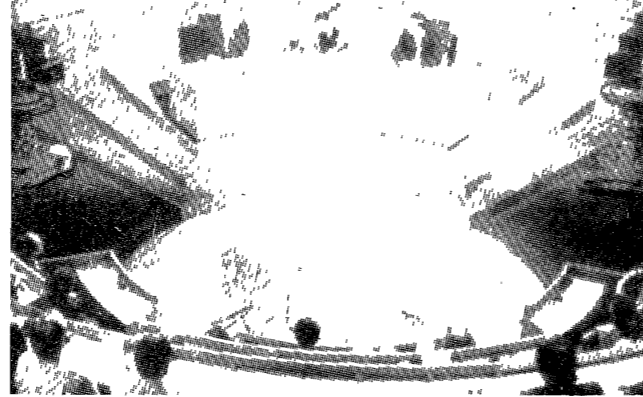
지난 불철 개편이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상업성, 선정성 등 시청률 지상주의는 결국 시청자들로부터 TV를 끄자라는 극악 처방을 내리게 함으로써 시청자 스스로 본격적인 주권회복에 나서게 되었다. 게다가 시청부 또한 문민시대에 맞는 방송을 요청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방송사들은 기용개편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시청률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없는 이종교인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청률 경쟁보다는 '품질'을 앞세운 경쟁이 기대되고 있으나 문제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폐지하고 전방적인 개선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두드러진 특성은 무엇보다 각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제작에 반영하는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청자 참여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편성, 제작 됐지만 프로그램의 활력을 준다거나 덜렵혀 달라는 소포를 지나지 않았던 반면, 이 음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청자 주권을 회복하려는 방송사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보여져 기대하는 바가 크다.

송원지 2주가 지난 지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목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뿐 아니라 시청자의 목소리를 빌어 방송사의 문제를 변명하는 면죄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보이고 있다.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라도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분석,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세 방송사 모두 일요일에 30분씩 편성하고 있는데, KBS1 '시청자 의견을 들읍시다' 5시30분~6시, MBC TV속의 'TV, 오전 7시40분~8시10분, SBS 'TV를 말한다' 밤 12시~12시30분에 각각 방송하고 있어 시간편성상으로도 불만 방송사 스스로 음부즈맨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제 초기단계라 제작진이나 시청자가 익숙하지 못한 분위기이나, 2주가 지난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은 30분이라는 시간내에 너무 많은 코너와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들어있어 구체적인 비평이나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SBS(10월31일)의 경우처럼 인터뷰 내용은 드라마의 가치지향에 대한 문제제기이나 제작자는 'SBS의 드라마는 밝고, 명랑하고 작가와 연출자는 부부다'라는 발언은 지적 사항에 대해 모호한 대답으로 통통



◇ 음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방송사의 자체평가가 될 수 있으나 기획의도와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 사진은 영국 BBC의 음부즈맨 프로그램.

그리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뜬구름 잡기만 한다.

KBS(10월24일) 시청자 단체의 토론자가 가요톱 10을 비롯한 인기 가요와 가수 청소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했더니 제작측에서는 지난 5주동안 김수희씨가 1등을 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김수희 노래가 1위를 했으므로 청소년 가요만 한것이 아니다는 서로서로든 동문서답을 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음부즈맨의 본래역할이 프로그램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방송사에 대한 자신들의 피해사태들을 가능한한 구체적인 형태로 이목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각 방송사의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청자 상담실에 접

수된 시청자 의견을 내보내고 제작자의 변명을 방송하는 형태로는 진정한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음부즈맨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 기획의도와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기반성이 보여진 후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불만 수렴 장구로서 역할이 가능해 지리라 본다. 또 단순히 시청자의 불만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대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되어진다. 자사 홍보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과연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미옥 (서울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회원)

학술심포

대학원 학생회가 주최한 지난 10월 28, 29일의 초청강연회와 학술 심포지엄은 대중문화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째날 중앙대의 강내희(영문학)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른바 신세대문화 등으로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는 대중문화는 그것의 정치경제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여기서의 정치경제학은 대중문화의 주제를 포함한 민중의 삶을 지배하는 '틀'을 말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강교수의 해석은 현실의 일면만을 보는 과정인 견제라는 의견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서태지가 우리사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지프와 미니밴과 같은 현재를 통찰한 분석이라고 한다.

이틀째의 심포지엄은 성관관대 이효성(언론학)교수, 본교 정재형(언어영역학)교수, 광주대 임동욱(출판광고학)교수가 대중문화와 관련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대중문화의 정치경제학' 주제 방송매체등 대중문화 심층분석

이교수는 대중문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창출해내는 대량생산문화이고, 민중을 상대로 소량생산되는 민중문화와는 다름을 지적했다.

고급문화, 엘리트문화와 구별되며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문화는 여러사람의 기호와 지식(知)의 최대공약수에 맞춰 틀에 박힌, 애정률·폭력률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바로상자에서 '권력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TV방송매체. 이교수는 방송매체의 중요성을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먼저 방송사를 점령했다. 가장 빠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예들이 역설했다.

본교 참관교수인 정재형교수는 '텔레비전문화'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텔레비전은 대량생산 시스템으로의 재규, '텔레비전 르네상스'로부터 발생한 다국적 자본도입때문에

현재는 일본의 자본이 커다란 역할을 장악하고 있다.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 마사시타가 유니버시티를 매입했고 일본인들은 할리우드영화의 각본속에 일본인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심어주고 있다.

가령, '12라는 영화는 12명을 정복하려는 미국인과 일본인 등반대를 등장시켜 신사적으로 양보하는 일본인을 보여주며 결국은 홀로 등반에 성공한 미국인이 12명에 성조기의 일장기를 동시에 꽂지만 민중 감정을 격정한 영화수입사가 그 장면들을 삭제해버려 우리관객들은 일장기가 꽂힌 12명을 볼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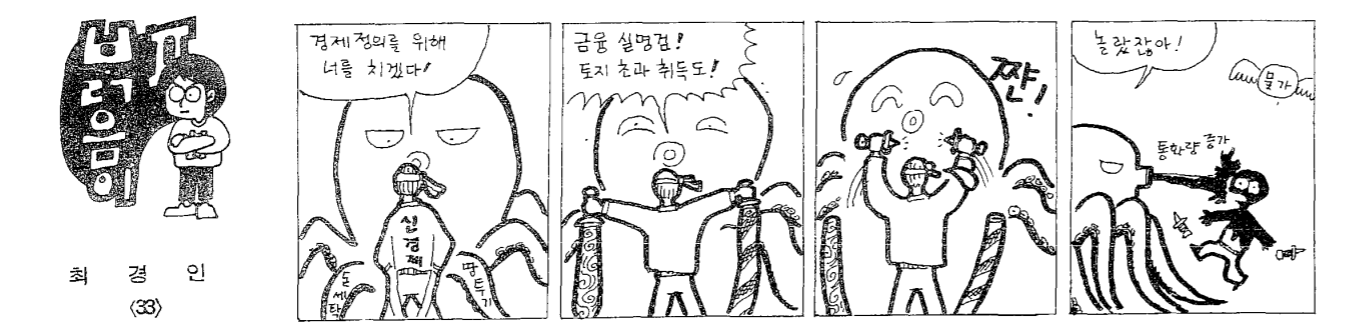
텔레비전문화는 왜곡된 정형(Stereo type)을 등장시킨다. 노예·백인의 조약자로 묘사되는 흑인, 검은 피부로 표현되는 유대인·이탈리인, 악당의 단골역인 중남미원주민, 백인을 위협하는 아랍인 이미지의 인디언 등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

고 왜곡된 결도습관 등장한다.

'출판광고학과'라고 이름지어진 4년제대학은 광주대학교 뿐이라고 한다. 임교수는 출판물의 상품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출판상품의 특징을 보면, 출판상품의 가치는 지식·정보등의 비실체적인 것이며 일종의 자본투하 후에는 값싼 재생산이 가능하고 무엇이건 하지만 그 유통해 보이지 않는 책은 팔리지 않는다.

현재의 베스트셀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치밀한 시장조사, 뛰어난 편집·디자인과 광고를 통해 생겨나 베스트셀러=돈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각학교 4명의 강사가 초대된 강연회와 심포지엄은 훌륭한 주제와 강사만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진지한 경청 자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유리 기자)



최 결 인 (33)

영화의 패러독스 신승수 '가슴 달린 남자' 남성전유공간 넘나드는 여성의 에피소드 성차별사회의 개선점 제시못해

제작편수가 점점 줄어들어 더욱 위기위기를 고조시키는 한국영화는 요즘들어 두가지의 뚜렷한 우리의 전통적 양식과 민족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서편제'류의 부러운 영화들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의 성적 갈등과 대립을 소재로 하는 가벼운 코믹 에로틱 멜로 드라마들이다.



성인 남성의 전유공간을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는 이 영화가 상당한 재미있고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물학적으로 정밀 다룬다. 그럴 뒤에서 내놓고 구별시키는 재미는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할

후자의 경향은 주로 젊은층 관객에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나의사랑 나의신부' 열풍이 '가'의 여파가 아직까지 내려오는 중세라 할수 있다.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신승수감독의 '가슴달린 남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이 유행을 형성하면서 제작되었는데, 물론 유행이란 그 오락성때문에 빛어지는 현상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화가 가벼워야만 한다는 논리는 있을수 없다.

'가슴달린 남자'는 그 제목부터 가볍게 웃고 넘기자는 알락한(?)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왜 하필 가슴없는 여자가 아니고 가슴달린 남자가냐고 하고, 다른 영화의 제목 역시 '사랑하고 싶은 남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라는 하시는 의문을 갖는다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말장난처럼 가벼울 수만은 없다는 것 느끼게 된다.

섹스를 매개로 한 가벼운 코믹 멜로의 유행은 '가슴달린 남자'에 와서는 이제 섹스는 사라지고 대신 남자가 발발하고 있는 성차별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 더 큰 흥미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는 똑같은 실력을 갖고도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해야하거나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대신 미스 무엇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하는 여성 근로자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영화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더 심한 경우 승진을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영화는 그 사회에 불만을 갖는 여주인공이 우스꽝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 재미는 여

리우드 영화 '스위티가 보여주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오락성에 대하여 한국인 특유의 오락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점을 제외하고 소위 영화의 매제지인 속알맹이는 얼마나 탄탄히 갖춰져 있는가가 의문이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여성이 남성을 따라가는, 혹은 모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의는 담겨져 있지 않다. 여주인공이 느낀 초본의 강한 주장은 끝까지 논쟁되지 않아 안타까운 것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문학단신 새로 나온 책

◇ 소설 '아메리카...하이에나와 마친후의 대륙, 인종차별이라는 지' (두수막·4천8백원·전2권)

◇ 공연안내 ◇ 내사랑 히로시마...평화를 추

좌익과 역사

수, 한길상, 장석철등이 광주제 일교보성 장재성, 국선영등을 지도하여 결성한 학생비밀단체였다. ▲최근 광주학생 독립운동지회(회장=최정기·8)는 아직도 사상적·정치적 이유로 명예로 회복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뒷전에 묻혀있는 16명의 좌익계열 인사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튀는 것엔 힘이 있다."

Nassau 2

새롭게 탄생한 낫소 챔피언쉽

- 밀링헬트: 기존의 '하이디릭스' 보다 30% 수명을 증대시켜 우수한 촉감을 유지시킵니다.
- 고 탄 성: 100% 천연 고무 배합으로 생동적인 탄성과 일정한 마운드를 지속시켜 줍니다.
- 탄티드렌: 자외선 침투방지 효과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포장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계인이 쓰는
낫소 챔피언쉽

■ 낫소는 국내 고유 브랜드로서 세계속에 한국의 기술을 심어가고 있습니다.